보복(報復)과 복수(復讐)

세상읽기

최종명
상담학박사·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원장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이제까지 보여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한다. 국정 운영의 방향이 국민의 삶과 행복을 얼마나 들여다 보려고 노력하였는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세심하게 시행되었는지, 화합과 통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우리나라의 국격을 세계적으로 드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세계적인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지난 2년간의 시험 문제였다. 이것은 기출문제였기 때문에(다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주 어렵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 결과가 더 궁금하기도 하다. 수능을 보고 나면 이전 시험에 비해 '체감난이도'는 어땠는지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다루지 않는가. 윤석열 정부의 소감이 사뭇 궁금해지는 선거 결과이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선거 운동과 함께, 공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경향성은 짐작이 된다. 그럼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실제 지난 몇 년의 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써만 받아 들일지 아니면 정쟁(政爭)으로 해석을 할지 말이다. 또 결과에 따라 어떤 정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어떤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이후 누가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예측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를 바꾸어보자. 이전에 잘못된 행위를 저질러서 비난받는 상대방에 직/간접적으로 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동인 '보복' 행위는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문화 보편적인 현상이다. 행동치료전문가인 아놀드 라자루스(A.Lazarus, 1991)에 의하면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건이 강한 피해의 느낌을 일으켜 보복과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복은 한 개인이 외부의 사건에 의해 위반된 자기개념(self-concept)의 교정으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 보복과 복수는 개념에 있어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써 '내가 당한 만큼 너에게 똑같이 돌려준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은 보복이며, '뭔가 감정적이며, 원한 관계인 느낌'이 실리게 되면 복수의 의미가 된다.

또한, 이번 총선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나 실제 총선 결과를 보면서 국민들은 길티 플레저 (guilty pleasure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몰래 즐기는 행동이나 정서) 만을 하고 있지않을까? 복수나 보복을 했다고 생각할까? 그냥 그리 될 일이었다고 평범하게 치부할까? 아니면 참으로 원치 않는 결과라고 아쉬워 할까? 어차피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는 최고라고 검증된 인물을 뽑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이미 일어난 대선의 결과를 보완하거나 바로잡는 기회로 생각된다. 그래서 더욱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복수는 대체적으로 해악으로 치부되나 어떤 경우 사회적 부정을 노출해서 바로잡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중요한 저항이 되기도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관점을 빌리면 이번 총선의 진행(현재 여론조사 결과)은 국민의 복수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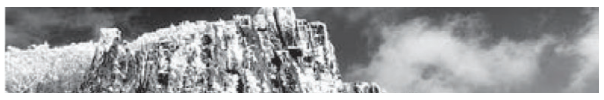
정신분석학자인 앨리스 밀러(A. Miller)는 '무조건적인 용서(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음)는 커튼을 쳐서 현실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억지로 용서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를 진실과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도의상 용서하지 않는 사람(moral unforgiver)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번에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도의상 용서하지 않은사람"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사진으로 보는 세상

영국 마라토너 러셀 쿡(Russel Cook)이 7일(현지시각) 튀니지 튀니스의 아프리카 대륙 최북단 라스 안젤라에 도착해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쿡은 352일 동안 아프리카 남단에서 북단까지 1만6000㎞를 종단했다.

튀니스=AP/뉴시스

서석대



4·3(死·삶)과 광주 5·18

19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절 기념 제주대회가 열렸다. 군중들이 가두시위에 나섰고 기마경찰 말발굽에 어린 아이가 다쳤다. 그대로 두고 지나가는 기마경찰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다. 관덕정 부근에 있던 무장 경찰들이 총을 난사했다. 주민 6명이 사망하는 등 제주4·3 도화선인 '3·1사건'은 그렇게 시작됐다.

미 군정은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지목했다. 극우청년 단체인 서북청년회(서청)가 경찰,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을 장악하며 '빨갱이 사냥'을 구실로 테러를 일삼았다. 한라산 금족지역이 해제되던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7개월 동안 제주도민 2만 5000명~3만명이 희생됐다.

마음의 빚으로 남아 늘 죄스럽던 차 지난달 말 광주전남·북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제주 4·3 세미나를 다녀왔다. 4·3평화기념관엔 방문객들로 붐볐다. 코너 해설사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행불인 묘역앞이 왁자지껄하다. '행불인표석 조화꽂이 봉사활동' 온 대학생들이다. 눕혀진 비석에 새겨진 '감옥에서 온 편지'는 눈물 없이는 읽을수가 없다. "몸과 기력에 영양 있는 약, 비타민을 부쳐주길…." "매형에게 부탁하였으니 소와 말을 잘 관리하여 주기를 부탁합니다."(감옥에서 온 편지 중). '섬하나가 몬딱 감옥이었주마씸/섬하나가 몬딱 죽음이었주마씸' (문충성의 시 '섬 하나' 중). 그들의 절절한 심정이 가슴을 짓누른다.

유일한 조형물 '변병생 모녀 조각상'으로 향했다. 젖먹이 딸을 안고 산에서 내려오다 이 근처에서 토벌대 총을 맞고 눈밭에 쓰러진 봉개동 모녀를 형상화 한 작품이다. 아이 울음소리에 은신처가 발각된다며 피난민들이 질책하자 산에서 내려오다 변을 당했다고 한다. 슬며시 뒤돌아 흐르는 눈물을 제주 바닷바람으로 말린 뒤 다시 조천읍 북촌마을로 향했다. 500여명이 하루 한 날 몰살당한 곳 북촌초등학교. 당시 악몽을 아는 지 모르는 지 초등생들의 재잘거림이 정겹다. 근처 너븐숭이기념관엔 강요배 화백의 '젖먹이' 작품이 보인다. 총맞아 죽은 줄도 모르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다. 분노감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 북촌마을 비극을 배경으로 쓴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 기념비도 있다. 대학때 어렵게 구해 읽었던 책 속 장소를 찾은 기분은 감동 그 자체였다. 소설가 임철우는 장편 '봄날'에서 광주5·18을 '결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열흘'이라고 표현했다. 제주 역시 '결코 아무도 찾지 않는 7년7개월'이었다. 당시 제주도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였던 것.

오는 길에 국립광주5·18민주묘지가 떠올랐다. 구묘역과 신묘역, 기념탑과 전시관, 옛 도청광장, 광주·전남 50여곳 사적지…. 그외 뭐가 있었나. 4·3유족회 관계자는 "그래도 광주 5·18은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 됐잖아요"라고 했지만 광주는 제주 4·3보다 뭔가 허전하고 부족해 보인다. 한달 뒤 5·18이다. 엄숙함·비장함을 벗고 산자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5·18을 만들순 없을까.

박간재 취재2부 선임부장

社說

농어촌 의료공백 막을 근본 대책 세워야

올해 공보의 전년비 35% 급감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보의는 군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소나 공공의료원 등에서 일하는 의사를 지칭한다. 이들의 감소도 곧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 하락으로 이어진다.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공보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공보의 감소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36개월 복무를 시작하는 20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모두 716명으로 지난해 1106명에 비해 35% 감소했다. 올해 복무 만료자가 1018명인 것을 감안하면 부족한 302명 만큼 공공 보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공보의 인력이 감소하고 올해 새로 배치할 신규 인력도 대폭 감소해 지역 의료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향후 인력 수급도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게 박 2차관의 설명이다.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공보의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지막 보루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이나 재난 상황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공보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보의가 줄어들 경우 지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는 곧 지역소멸로 이어진다. 당장 최근 정부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된 공보의를 병원으로 차출하면서 지역의료 현장은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고 있다. 공보의 비중이 큰 전남의 의료현실도 악화되고 있다.

적절한 수준의 공보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공보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전반적인 의료 체계를 개혁하고 의사 증원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어민과 빈곤층 등 의료취약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것은 정부에 주어진 과제이면서 의무다.

무책임한 행정이 만들어 낸 '닭발 가로수'

과도한 가지치기 재고해야

경기도 수원시 정조로에는 직사각수형 버즘나무길이 인상적이다. 네모난 모양 때문에 '메로나'나 '깍두기'로 불린다. 또 중부대로에는 원형으로 가지치기가 된 은행나무도 볼 수 있다. 가로수를 일정한 모양으로 전정하는 '테마 전정'을 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 2005년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잦아져 해결책으로 '경관형 가로수 전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가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도심경관을 저해하는 일명 '닭발 가로수'와 대조를 이룬다. 8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광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아파트와 산책로·학교 인근 23곳(41그루)에 대해 과도한 가지치기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무는 잔 가지 뿐만 아니라 굵은 가지도 대부분 잘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가로수는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조사한 올바른 가로수 가지치기는 나무 전체의 25% 이상을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나무의 머리 부분을 무차별 절단하거나 옆 가지 중 굵은 가지를 절단하는 방법은 금지해야 한다. 잎의 성장을 늦추고 양분 축적을 더디게 만들기 때문이다.

닭발 가로수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매년 3~4월 새싹이 나는 시기에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뤄진다는 지적에도 불구,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자치구의 가로수 전정행정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수원의 '테마 전정'은 가로수가 가진 원래의 수형은 아니지만, 독특한 경관을 자랑한다. 수원시는 가로수길 조성과 사후 관리가 우수해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고 한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결국 지자체의 관심 부족과 행정난맥이 빚어낸 결과다. 행정기관이 책임의식을 갖고 가로수 가지치기에 임한다면 '닭발 가로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의 세심한 배려와 창의력을 발휘하다면 프랑스 파리의 상젤리제 같은 명품 가로수 거리가 광주에도 하나쯤 생겨나지 않을 까 싶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 재 욱 논설실장 이 용 환 편집국장 박 성 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